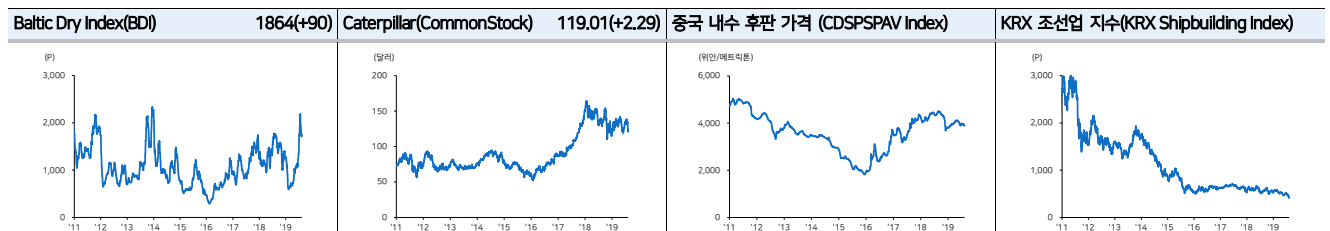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한국조선해양	6,737.6	16.4	95,200	-1.1	-17.2	-12.7	-25.9	66.3	31.8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4,910.4	20.6	301,500	-1.3	-10.5	-1.8	-12.9	4.1	3.4	0.5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247.3	6.2	12,150	-0.4	-25.2	-36.4	-45.3	1.2	1.0	0.1	0.1	9.3	9.7
현대건설기계	539.8	11.7	27,400	-2.7	-25.3	-36.0	-35.8	1.7	1.3	0.2	0.2	11.7	13.9
삼성중공업	4,265.1	19.6	6,770	-0.4	-12.9	-13.3	-8.6	42.7	21.2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626.5	12.7	24,500	-0.4	-22.7	-9.3	-28.3	8.6	8.6	0.7	0.6	9.0	7.6
현대미포조선	1,519.8	15.1	38,050	0.9	-19.4	-23.4	-36.6	8.2	5.9	0.3	0.3	3.6	4.8
한진중공업	366.8	20.9	4,405	-0.7	-23.9	-46.4	-46.8	88.6	22.1	0.6	0.6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080.7	21.4	76,500	0.5	-13.7	-1.3	-28.5	13.5	13.1	1.9	1.7	14.6	13.3
두산밥캣	3,583.9	26.8	35,750	0.0	-1.0	12.0	15.4	13.1	12.3	1.0	1.0	7.4	7.6
현대로템	1,338.8	4.3	15,750	-1.3	-20.5	-15.8	-43.4	20.3	13.8	0.9	0.9	4.5	6.3
하이룩코리아	221.2	46.9	16,250	-3.3	-10.2	-11.9	-1.2	7.4	6.7	0.6	0.6	8.8	9.0
성광벤드	254.3	18.6	8,890	-1.8	-14.5	-19.9	-22.0	785.9	31.9	0.6	0.6	0.1	1.8
태광	222.1	11.7	8,380	-0.7	-17.8	-23.5	-28.4	50.0	24.4	0.5	0.5	1.0	2.1
두산중공업	1,097.7	11.6	5,430	0.4	-12.7	-13.3	-35.3	-16.3	18.3	0.2	0.4	-0.1	3.4
두산인프라코어	1,211.5	16.9	5,820	2.3	-4.1	-12.0	-23.3	4.0	4.2	0.6	0.5	17.7	14.1
HSD엔진	95.2	3.5	2,890	-3.7	-18.4	-21.6	-45.3	-7.6	-6.5	0.4	0.5	-4.7	-7.2
한국항공우주산업	3,733.3	20.3	38,300	2.3	12.2	25.2	20.1	55.9	18.7	3.4	3.1	6.1	17.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845.8	15.9	35,800	16.6	13.7	17.4	10.2	148.3	23.0	0.8	0.8	0.6	3.4
LIG넥스원	625.9	6.1	28,450	1.1	0.2	-16.3	-23.0	65.5	N/A	1.3	N/A	2.4	2.4
태웅	165.7	4.3	8,280	-1.4	-19.2	-7.6	-21.1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13.2	4.5	7,900	0.6	-10.5	-19.0	2.3	-16.7	11.6	2.9	2.3	-16.2	22.3
한국가본	306.4	13.6	6,970	0.0	-13.8	-19.3	-1.0	108.5	18.2	1.0	1.0	0.9	5.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xxonMobil 'eyes UK North Sea exit' - report

ExxonMobil이 미국 셰일 생산 및 신규 프로젝트에 집중함에 따라 영국 북해지역의 사업철수를 고려한다고 보도됨. 최근 북해지역 사업자들과 회담을 갖고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짐. 이미 노르웨이 해안자원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이며, 이는 영국 북해지역 사업철수를 의미한다고 보도됨. (Upstream)

John Fredriksen teams with Trafigura to forge new marine fuel giant

John Fredriksen은 Frontline과 GoldenOcean을 통해 3분기 중 합작회사에 각각 15%, 10%씩 지분투자 예정임. 합작회사는 세계 최대 선박유 공급업체로서 관계기업 선박 포함하여 제3자회사 선단에도 선박유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짐. 회사관계자는 투자관련, IMO 2020 규제가 세계적으로 해양연료 공급 이슈를 야기할 것이라며 투자배경을 설명함. (TradeWinds)

EU approves state aid for Croatian LNG FSRU

EU는 크로아티아의 'LNG FSRU at Krk Island' 프로젝트의 LNG FSRU 건조 및 운영에 대하여 승인함.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연간 26억CBM 규모의 천연가스를 크로아티아 국내 네트워크에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음. 건조 규모는 2.6억달러 규모이며 EU와 크로아티아로부터 조달될 계획임. (TradeWinds)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NG 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 열릴 날 손꼽아

세계 최초의 LNG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발주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두 조선사 모두 수주를 따내겠다는 의지를 보임. 미국 에너지회사 Shell은 LNG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용선계약방식으로 발주하기 위해 선박회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짐. 조선사들 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만이 LNG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설계승인 받은 상황. (비즈니스포스트)

韓조선업, 세 달 연속 中 제치고 수주 1위...글로벌 발주 절반 차지

한국은 7월 수주량 27만CGT 및 10척으로 세계 선박 발주량 55만CGT(25척) 중 절반을 차지함. 석 달 연속으로 중국(20만CGT, 11척)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함. 일본은 3만CGT(1척)으로 3위를 기록함. 누적 수주량에서 한국은 374만CGT로 점유율 32%를 기록하며 중국(474만CGT, 40%)과 격차를 줄임. 일본은 145만CGT(12%). (이데일리)

조선업 3강 구도서 빅2 재편에 '시너지 효과 vs 경쟁력 약화'

13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인수'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음. 찬성 의견으로는 기업 정상화, 글로벌 조선 1, 2위 업체간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및 경쟁력 강화 등 있었음. 반대의견으로는 독과점 체제형성으로 인한 국제적 견제 심화, 하청업체 및 지역사회 타격 등 있었음. (이데일리)